

# ‘해체 위기’ 영암군 민속씨름단 살아남았다

‘군정 홍보’ vs ‘혈세 낭비’ 씨름단 평가 엇갈려  
우승희 군수 “공론화위, 지속 운영 권고 수용”  
일부 주민들 “이미 예견된 결론...공정성 훼손”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로 평가가 엇갈리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던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0일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씨름단의 존치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 2017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해체 위기에 있던 국내 유일의 프로팀 ‘현대코끼리씨름단’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씨름단 운영비는 2017년 17억26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17억6200만원, 2019년 16억100만원, 2020년 18억9200만원, 2021년 15억9770여만원, 지난해 21억532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 6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군비가 씨름단 운영비로 투입됐다.

씨름단 운영비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국비 4억원과 도비 3억원이 지원됐을 뿐 2018년 이후 군비와 민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출범 당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부담금을 10억원으로 묶고, 나머지 소요 예산은 국·도비를 유치하겠다는 목시적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홍보효과 의문, 대회 때마다 공무원 동원 등 각종 문 제점 노출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유·무형의 광고로 농산물 판촉과 지역홍보 등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역내 찬반여론이 분분하자 영암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주민여론 수렴에 나섰다. 공론화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사회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군민 1018명을 대상으로 1·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씨름단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1.5~52.1%로 부정적인 의견 47.9~48.5%를 앞섰다.

군민참여단에서는 2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토론회에서 70.2~74.3%가 씨름단 유지를 찬성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우승희 영암군수가 20일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암군 제공

‘씨름단의 지속 운영’을 권고했다. 하지만 씨름단 운영에 대한 속의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씨름단의 존치는 예견된 결과였다”면서 “존폐를 논의하면서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 등 영암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곳곳에서 감지됐다”고 주장했다.

우 군수는 향후 씨름단 운영과 관련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 국·도비 확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

암군 홍보, 최고의 씨름단 육성과 선수 보호, 지역민과 함께하는 씨름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우 군수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 씨름단을 유지하되 지역에 도움이 되고 군민이 자부심이 되도록 스포츠 마케팅과 경영마인드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움은 있지만 성숙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씨름단이 최고의 씨름단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암=이병영 기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진도군, 56개 마을 대상

진도군은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 농번기철 영농에 집중하기 위한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급식 종사자와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56개 마을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마을당 최대 350만원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에 도시락과 반찬 배달,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영암군, 1대1 개별 심리상담 등

영암군은 사회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여성민원, 폭언 등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감정적 소모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심리지원서비스를 3개월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와 심리검사를 통해 1:1 개별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과 각종 힐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위기관리 대상일 경우 전문기관 치료연계 및 사례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나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영암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1-470-6029)로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군민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농특산물 마케팅대학 운영  
강진군, 현장전학 등 10회 과정

강진군은 지난 15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3년 농특산물 마케팅대학’ 개강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이영래 사무총장이 ‘성공 농업을 위한 최신 농업 트렌드’라는 주제로 농특산물 유통의 변화를 설명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첫 강의의 문을 열었다.

농특산물 마케팅대학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마케팅 이론 강의와 선진지 견학 등으로 총 10회 진행된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해 올해 84명이 수강을 등록했다.

총 교육시간 중 70%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유통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택배비 지원액 상향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유통과 저장,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증강현실로 즐기는 강진청자축제

‘우리동네 보물찾기’ 이벤트

오는 23일부터 3월1일까지 개최되는 ‘제51회 강진청자축제’에서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색다른 이벤트가 선보인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자축제 증강현실 이벤트는 ‘우리동네 보물찾기’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축제가 열리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보물찾기’를 실행하면 된다.

구글 지도 연계로 축제장 내 청자 위치가 제공되며 청자를 찾으면 스탬프로 목표 달성을 확인받는다. 청자축제와 관련된 난이도가 낮은 퀴즈 한 문항을 맞추면

축제 관련 굿즈 가운데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

숨겨진 청자는 6~7개로 가족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각별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벤트는 오후에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며 하루 기준으로 미션을 완료한 관광객 선착순 100명에 강진사랑상품권(5000원권)과 굿즈 가운데 한가지를 제공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4차산업혁명 활용은 예상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활의 변화는 물론, 신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완도군, 해안도로 따라 ‘가리포 노을길’ 조성

완도군은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리포 노을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리포 노을길이 조성될 완도를 대신리에서 군외면 대문리까지 국도 77호선은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해안 경관이 뛰어나며 일몰이 장관이어서 드라이브하기에 좋다. 이에 군은 국비 40억원을 투입하여 6km 구간에 노을길을 조성한다.

가리포 노을길은 완도의 주요 관광지

인 소세포 세트장과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될 완도수목원을 연계하고 한 폭의 그림 같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포토 존과 쉼터, 경치 좋은 곳에 경관 전망대와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최경철 기자

## 해남군, 25일 달마고도 힐링축제 연다

해남군은 오는 25일 해남 미항사 및 달마고도 일원에서 2023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아름다운 절 미항사가 있는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 달마고도 일원에서 열리는 걷기 축제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다.

‘우리의 첫 봄, 달마고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걷기행사와 숲속 버스킹과 재즈, 퓨전 국악, 가야금 병창 등이 진행된다.

노르딕워킹·명상 등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이벤트,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도 마련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완도 섬 지역 긴급 지하수 개발’에 성공해 하루 1450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 농어촌공사, 완도 섬 지하수 뚫어 하루 1450톤 공급

한국농어촌공사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 섬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섬 지역 긴급 지하수 개발’에 성공해 하루 1450톤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완도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강우량이 44mm로 평년대비 16% 수준에 불과해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등 물 부족

을 겪고 있다.

전남지역본부와 완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일도, 노화읍 냇도, 소안도, 약산도에서 전기탐사와 시추조사 등을 추진해 13공의 지하수 개발에 성공했다.

조영호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공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완도=최경철 기자